

The Keyword IV.

파장 (Impact) '삶에 영향을 주는 파장의 근원을 찾으라'

1. 영향 그리고 사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우리 신앙에 중요한 기초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은 '관계'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래서 본질을 알아야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본질의 핵심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관계'를 말한다. 이 부분이 명확해야 신앙으로부터 오는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다.

관계란 무엇인가? 영향을 주는 사이를 말한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다. 모든 존재가 서로 관계한다.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사이를 말한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력은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적이었다. '선한 영향력'은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했다. 발전시켰다. 풍성하게 했다. 내 삶에 유익이 되는 실재적인 영향력이었다.

그리고 이런 영향력은 아담의 첫 아내 하와에게 영향력을 주었다. 에덴에서 둘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그런데 부정적인 '악한 영향력'도 있다. 사람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존재라 말했다. 마귀에게 악한 영향을 받았다. 그것이 사람의 삶을 파멸하게 했고, 서로에게 선할 것이 없는 파멸의 영향력이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는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 영향력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임팩트, 파장 그리고 영향력

(1) 임팩트

영향력이 발생하는 순서가 있다. 영향력은 이미 힘이 형성된 상태를 말한다. 최초의 힘이 무엇으로부터 시작 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최초의 도화선, 발화점이 일어난 순간이 '임팩트'가 있는 순간이다. 임팩트는 '충격'을 말한다. 불이 붙은 시점이다. 그래서 임팩트가 일어난 시점과 임팩트의 강도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를 주는 존재는 아주 중요하다. 임팩트가 파장을 만들고, 축적된 파장이 영향력과 같은 힘을 만들기 때문이다. 임팩트는 임계점의 상태를 말한다. 카이로스의 때, 그래서 시작점이 된다. 사람으로 말하면 의미없는 무의미한 만남이 아니라, 충격이 있는 첫 만남을 말한다. 신앙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임팩트가 있었는가를 보아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임팩트가 없는 신앙은 파장도, 영향력도 없다. 임팩트한 만남이 있어야 한다. 시작점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 '충격-임팩트'가 있었다.

제자들과의 만남은 모든 것이 충격이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충격의 대상이다. 사울이 만난 예수님 또한 충격이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고꾸라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충격적이며 극적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복음서의 사건은 기승전결이 있는 '이야기'가 된다.

ㄱ) 분별

임팩트의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이다. 첫 접촉점의 때가 중요하다. 왜 첫 만남에서 분별이 필요한가? 진짜를 알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첫 접촉점이 중요한 이유는, 충격은 두 번째에 감소되고 회가 지날수록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ㄴ) 미디어

현대인들이 미디어에 머무는 시간들이 증가되고 있다. 지금의 미디어는 '네트워크' 되어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에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ㄷ) 생각의 새로고침

예수님의 보혈로 잘못된 임팩트의 순간을 씻어야 한다. 특별히 생각을 보호하라. 전신갑주 중 '구원의 투구'를 요청하라. 모든 것이 시작이다. 파장이 형성되기 전, 시작점을 갈아엎어야 한다. 포도밭을 망치는 작은여우를 생각의 영역에서 잡으라.

(2) 파장[波長] - wave

'어떤 일이 끼치는 영향 또는 그 영향이 미치는 정도나 동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임팩트를 통해 시작점이 형성이 되면 그 곳으로부터 파장이 일어난다. 파장은 파도와 같다. 퍼져나가는 것이다. 강력한 임팩트가 있었으면 그 힘으로부터 퍼져나가는 파장이 큰 것이다. 사도행전은 바로 임팩트한 충격과 파장의 이야기이다.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순절 성령이 임팩트하게 임한 그 시점을 통해 파장이 퍼져나간다. 사도행전의 선교의 파장이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이다. 초대교회가 지속적으로 파도를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부정적 파장이 아닌 선한 파장을 일으켜야 한다.

[사도행전 2: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백성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였다. 이들이 백성들을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교회안에 복음이 갇혀 있지 않았다. 지역으로, 사회로,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파장은 소문이다. 선한 소문이 나야한다. 교회가 세상과 분리된 곳이 아님을 명심하라. 내가 있는 곳마다 선한 소문과 그로 인한 파장이 있어야 한다.

(3) 영향력이 되는 단계

첫 파장을 일으킬 임팩트한 시작점이 중요하다.

[사도행전 2:46]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는 (성도의 사랑과 교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파장을 계속해서 일으켰다. 마찬가지로. 겉으로 나타나는 파장은, 내면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코이노니아의 장소에서 시작됨을 명심하라. 지속적인 파장이 연속해서 일어나면 힘이 축적이 된다. 그 힘이 영향력이 된다. 교회안에 일으켜진 지속적인 파장은 교회를 부흥시켰고, 많은 교회로 확산 되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파장은 영향력이 되어 온 나라에 각 영역에 퍼져 있다.

그러므로 파장이 시작되는 첫 장소를 잘 경작해야 한다. 주님과 함께 하는 장소를 확보하라. (내면의 장소 / 교회 /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 이 장소가 경작되지 않으면 결국 부정적 파장, 분노의 파장, 긴장의 파장이 나갈 것이다. 그 파장이 본인은 물론 주변 공동체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선한 파장이 일어나도록 생각과 마음을 경작해야 함을 명심하라.

(4) 비전 -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리더 한 사람을 키우라.

임팩트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 사람이 리더이다. 사탄의 견고한 진을 금가게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리더를 길러내라. 어디에 있든지 다윗처럼 매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를 기경하는 것. 바로 이것이 멈추지 않는 파장을 줄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